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Father's Communication Patter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우연희(Woo, Yeon-Hee)¹⁾

이종각(Lee, Jong-Kak)²⁾

문수백(Moon, Soo-Back)³⁾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50 to second graders from a middle school in S city in the Gyeongbuk province of South Korea.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20.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marital conflict in terms of the father's open communication model indicated both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up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Marital conflict in terms of the father's problematic communication model revealed an indirect effect up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lso indicated that these behaviors were also mediated by the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Second, a open communication style on the part of the father indicate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he problematic communication model on the part of the father revealed a very clear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w04511001@hanmail.net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leekak2@hanmail.net

³⁾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oon, Soo-Bac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02, Korea
E-mail : iqmoon@hanmail.net

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청소년문제행동(adolescent problem behavior),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father's open communication),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I. 서 론

인간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과 인성을 발달시킨다.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근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핵가족화, 기혼 여성의 취업, 가족의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정의 출연하는 등 가족구성원 관계의 큰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 내의 울타리가 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촉발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의 일탈과 관련된 자녀의 사회·정서적 문제(Emery & O'Leary, 1984; Grych, Seid, & Ficham, 1992; Holden & Ritchie, 1991; Peterson & Zill, 1986)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감소하고 세대 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갈등, 고민,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갈등에 놓이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해 불안하거나 학업집중에 곤란을 느낀다(Do, 2008). Angold와 Costello(1995)는 청소년의 외면적, 내면적 부정적 행동의 원인으로 가족의 역기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변관계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에 뚜렷하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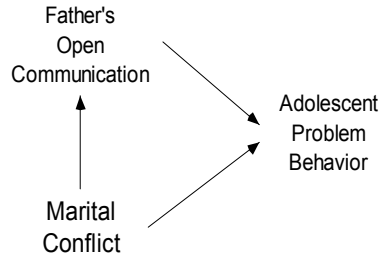
타나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특히 불량한 것, 부정적인 것을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시기성과 어우러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부부갈등은 상이한 가족 경험에서 출발하여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사고방식, 가치관, 역할기대 등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성 때문에 서로 상존하다가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도출되어진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지각한 역기능적 부부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교정되어야 할 문제행동인 것이다. 이처럼 부모 간 갈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특히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Vanderwater & Lansford, 1998)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Lee & Lee, 2006). Holden과 Ritchie(1991)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불안과 위축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결여되고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를 가지는 것(Moon·Oh, 2002)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단면인 부부갈등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능력, 학업성취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Kwon & Lee, 1999; Jung & Lee, 2004; Lee, Min, & Lee, 2005).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부부갈등은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태도 등에 전이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Erel & Burman, 1995)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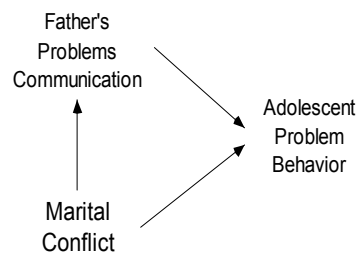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기 문제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야기하는 혼란으로 특징지어진다. 청소년기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일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증가시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Barnes와 Olson(1982)은 가족 결속력과 가족 적응력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형에서 가족들은 의사소통 매개체를 통하여 규칙, 역할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확립된 의사소통 경로를 사용하여 가족체계 내에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였다. 특히 의사소통은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 발달 등에 관계되어 핵심요소로 작용을 하며, 기존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Kwon & Lee, 2006; Yang & Park, 2004). 또한 Satir(1972)는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구분하면서 상호분명한 의사소통이 성립되고 유지되며,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Min, 1991), 학업 성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Oh, 2006),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

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연구로 비추어볼 때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줄이는 원인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이고 역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0; Kim & Lee, 2006; Ko, 2005; Park & Kim, 2004; Yu, 2003). 또한 명령적 의사소통 형태를 사용에 따른 통제로 인하여 애정과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갈등을 겪게 되고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on & Kim, 2004). 특히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친밀감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Ji, 2007)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Kim, 2003; Min, 1991)은 아버지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사소통 형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반 사회적 환경변화를 겪는 초기 청소년기는 이전과 다른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 및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에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청소년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Figure 1-1> Father's open communication hypothetical model



<Figure 1-2>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hypothetical model

의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과 청소년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이상 연구가설에서 밝힌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 설정한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S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 후 2011년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66.3%)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33.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89.2%)로 비동거(10.8%)보다 훨씬 많았다. 대상자의 가정환경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미만(3.6%), 월 100~200만원미만(26.9%), 월 200~300만원미만(38.8%), 월 300만원이상(30.6%)이고, 아버지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3.1%), 고졸(55.4%), 전문대졸(15.5%), 대졸이상(25.9%)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의사소통척도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on(1985)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용 질문지를 청소년 자녀로부터 측정된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 각각 10문항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

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20문항이다. 점수체계는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로 측정되었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된 결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90,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86이었으며 아버지 의사소통 전체적으로는 .93이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Graych 등(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 51문항을 Kwon과 Lee(1997)가 번역하여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48문항 중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Grich & Fenchman, 1990; 정은희·이미숙, 2004)에 비추어 부모갈등의 특성 및 차원에 해당하는 강도, 빈도, 해결 척도만을 2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채점 방법은 문항 2, 6, 9, 11, 12, 15, 17의 7개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된 결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문항에서 강도는 .85, 빈도는 .82이었으며 해결은 .81으로 전체적으로는 .91이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미된다.

3)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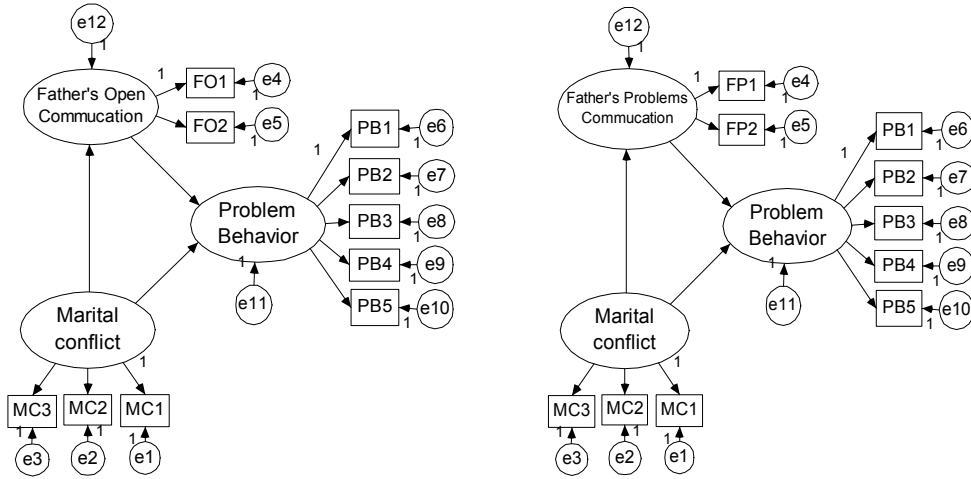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Oh, Hong, Lee, & Ha(2001)가 번안하

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Youth Self-Report : K-YSR) 117문항 가운데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중 내면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중에 4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 맞게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면화된 행동문제에 사회적 위축(6문항), 신체증상(10문항), 우울/불안(10문항)의 하위척도와 외현화된 행동 문제에 비행(9문항), 공격성(11문항)의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점수체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었다. 문항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된 결과 청소년 문제행동 문항에서 위축은 .80, 신체증상은 .81이었으며 우울/불안은 .82, 비행은 .81, 공격성은 .84로 전체적으로는 .9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미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 변인으로 설정한 부부갈등과 부개방 의사소통, 부문제 의사소통 차이와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Figure 1-1, Figure 1-2를 연구모델, 그리고 Figure 2를 통계적 검정모델로 설정하였다. Figure 2의 통계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모델을 검정하기 위해 측정모델 증명단계와 구조모델 검정단계의 2단계를 통하여 부합도 지수 χ^2 값, SRMR, RESEA, CFI, NNFI를 평가하였다(문수백, 2009; Kline, 2011).



<Figure 2> Father's open communication & father's open communication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Original SEM)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 19.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변인 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각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9.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각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0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 변인

2. 각 측정모델의 부합도 평가

연구모델인 각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Table 2-1, Table 2-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측정모델의 χ^2 값,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Table 1> Correlations matrix for measured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FO1	FO2	FP1	FP2	MC1	MC2	MC3	PB1	PB2	PB3	PB4	PB5
FO1	1											
FO2	.81	1										
FP1	-.60	-.55	1									
FP2	-.53	-.54	.81	1								
PC1	-.25	-.22	.32	.33	1							
PC2	-.21	-.24	.37	.36	.72	1						
PC3	-.19	-.21	.34	.35	.81	.74	1					
PB1	-.23	-.26	.55	.48	.26	.24	.27	1				
PB2	-.30	-.32	.53	.47	.31	.31	.34	.78	1			
PB3	-.23	-.25	.44	.37	.19	.25	.30	.68	.67	1		
PB4	-.18	-.27	.44	.40	.18	.18	.26	.73	.67	.71	1	
PB5	-.23	-.31	.47	.43	.16	.18	.26	.80	.74	.75	.80	1
Mean	12.0	12.1	12.0	12.1	16.7	15.5	16.4	27.4	21.9	24.5	21.9	17.0
SD	3.11	2.99	2.81	2.82	4.21	4.68	4.12	6.12	4.83	5.11	4.65	4.27
Skewness	-.01	-.11	.05	.32	.01	.06	.13	.22	.12	-.01	-.03	.11
Kurtosis	-.39	-.17	-.15	-.18	-.42	-.90	-.33	-.19	-.04	-.24	-.36	-.15
N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RMSEA, 3) 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Moon, 2009; Kline, 2011). Table 2-1, Table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4~.09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모델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에 있어서 각 측정변인 간 요인부하량이 모두 .8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어떤

측정모델하의 다른 잠재변인들과 -.26~.60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측정모델하의 측정변인들의 각 잠재변인에 대한 충분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각 측정모델의 잠재변인간의 충분한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하의 모든 잠재변인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Table 2-1> Measurement model of fit index for father's open communication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3	32	77.70	2.43	.97	.03	.98	.05	.09

<Table 2-2> Measurement model of fit index for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model	23	32	71.57	2.24	.97	.03	.98	.04	.09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3-1, Table 3-2와 같다.

Table 3-1, Table 3-2에서 각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문제형 의사소통에서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Table 3-1>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of father's open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MC → FO	-.177	.05	-3.41*	-.26
MC → PB	.37	.10	3.87*	.26
FO → PB	-.56	.14	-4.07*	-.27

* $p < .01$.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MC=Marital conflict,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Table 3-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MC → FP	.30	.05	6.48*	.43
MC → PB	.14	.09	1.45	.10
FP → PB	1.24	.13	9.30*	.60

* $p < .01$.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MC=Marital conflict,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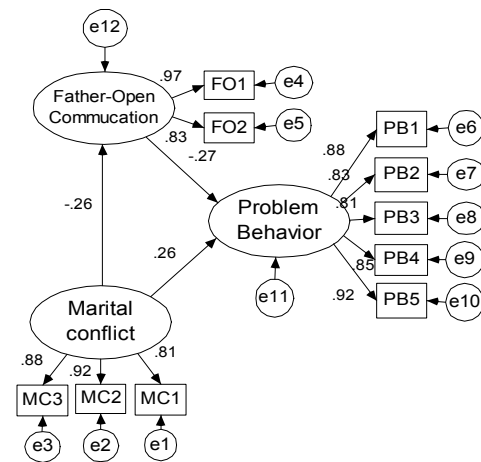
<Table 4> Model fit for modified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type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Modified model	22	33	73.68	2.23	.97	.03	.98	.05	.09
Original model	23	32	71.57	2.24	.97	.03	.98	.0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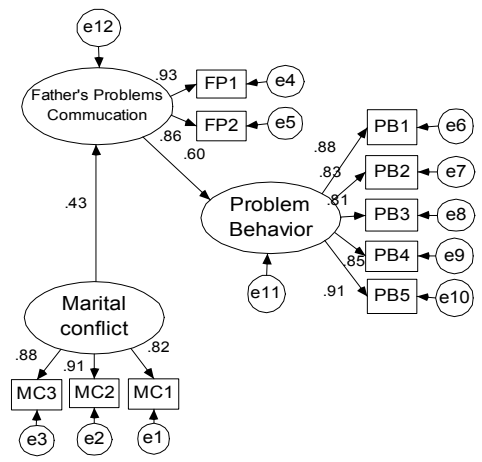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 = 1.45, $p > .01$). 초기 부 문제형 의사소통 연구모델에서 부부갈등 →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된 부 문제형 의사소통모델을 개발한 다음 초기 모델과 수정모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chi^2_D = 2.109$, $p = .14$ 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문제형 의사소

통 수정모델이 초기 부 문제형 의사소통 연구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로를 1개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부 문제형 의사소통 수정모델의 부합도를 Table 4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04~.09, SRMR = .03, CFI = .98, TLI = .97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Figure 3-1> Father's open typ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Figure 3-2> Father's problems typ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FO1=Father's open communication1, FO2=Father's open communication2, FP1=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1, FP2=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2, MC1=Resolution, MC2=Frequency, MC3=Intensity, PB1=Aggression, PB2=Delinquent behavior, PB3=Depression/Anxiety, PB4=Somatic complaints, PB5=Withdrawn

나타났다.

4. 부 개방형 연구모델과 부 문제형 수정연구 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위의 Table 4에서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지수인 Chi-Square(CMIN)값만 2.109만큼 높아졌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부합도가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과 부 문제형 의사소통 수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Figure 5-1, Figure 5-2와 Table 5-1, Table 5-2와 같다.

부부갈등이 부 개방형의사소통, 부 문제형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효과

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다음 Baron & Kenny(1986)의 간접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5-1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beta = .26,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개방형 의사소통에 직접효과($\beta = -.26,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개방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beta = -.27,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은 부 개방형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간접효과($\beta = .07,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 중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 개방적 의사소통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Table 5-2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beta = .10, p > .01$)를 가지지

<Table 5-1> Effect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open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MC → FO	-.26*	-.26*	
MC → PB	.26*	.26*	.
MC → FO → PB	.07*		.07*
FO → PB	-.27*	-.27*	

* $p < .01$.

MC=Marital conflict,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Table 5-2> Effect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Type

Paramete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MC → FP	.43	.43*	
MC → FP → PB	.26		.26*
FP → PB	.60	.60*	

* $p < .01$.

MC=Marital conflict,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Table 6> Results of the sobel test for each structural model

Variences	Z	p
MC → FO → PB	2.61*	.01
MC → FP → PB	4.91*	.01

* $p < .01$.

MC=Marital conflict, FO=Father's open communication, FP=Father's problems communication, PB=Adolescent problem behavior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문제형 의사소통에 직접효과($\beta = .4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beta = .60,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갈등은 부 문제형 의사소통을 통해 간접효과($\beta = .43, p <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 중 부 문제형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부갈등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Figure 5-1, Figure 5-2,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 사이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유효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개방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는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 사이에 직접효과($\beta = .10, p > .01$)가 나타나지 않고 간접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남에 따라 부 문제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청소년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해야 할 결

과변수로 놓고 선택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을 지표변수로, 부개방형 의사소통 모델 및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을 지표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들의 구조적 차이와 직·간접효과,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모델부합여부와 회귀계수의 모수치 효과를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으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4~.09)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수치 추정결과 부 문제형 의사소통이 모델의 경우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의 경우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보다 간명한 수정된 구조회귀분석모델을 초기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수정 모델로 모수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최종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부갈등,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과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 있어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불안, 위축,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Emery, 1982),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Leem, Choi, & Chae, 2008)와 일치하며, 부 개방형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연구(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와 일치한다. 부부갈등은 아버지 개방형 의사소통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Jeong,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in, 1991)와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Son, 2007)와 일치한다. 부부갈등은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라 것(Park & Kim, 2008)과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자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하고, 자녀 자신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고, 갈등상황에서 두려움과 난처함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연구(Roh & Jun, 2006)와 일치한다.

둘째, 부부갈등과 청소년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가? 부부갈등,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 및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부분매개역할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부갈등이 높더라도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같은 부모-자녀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 부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고 부부갈등은 부 문제형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부갈등을 설명할 때 부부갈등의 당사자인 아버지의 언어적 갈등상황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부부갈등 빈도가 많을수록 그 상황을 보다 예민하게 하여 더 많은 행동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Grych & Fincham, 1990),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eldman, Nash & Aschenbrenner, 1983)와 부모간의 갈등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Fauber et al., 1990; Farber & Long, 1991; Vincent et al., 1991)와 부부갈등 그 자체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함으로써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eong, 2007)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 개방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부갈등이 높더라도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같은 부모-자녀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부간 갈등이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하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실제 개인의 삶에서 가족 내 갈등은 불가피성을 비추어 볼 때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갈등의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식, 특히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ee, Min, & Lee 2005).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 모델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고,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같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완전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아버지 문제형 의사소통 같은 갈등상황을 지각하게 되고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을 지각하더라도 갈등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식, 특히 의사소통 대처 기술이 가정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발달상으로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을 둔 부모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배려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

참 고 문 헌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gold, A., & Costello, E. J. (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al Reviews*, 17, 74-82.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and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cycle*(pp. 33-48).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nes, H.,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oi, K. R. (2010),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Parental Communication, Academic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48*(7), 33-48.
- Do, K. H. (2008). Relation among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39-155.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ions of marital rel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arber, R. J., & Long, L. (1991). Children in context :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 Wierson, M. (1990). A mediation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eldman, S. S., & Nash, S. C., & Aschenbrenner, B. G.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 Grych, J.,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rych, I.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eong, S. H. (2007). An Analysis of Pathways From SES, 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 Delinquency. *Koer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2*, 5-34.
- Ji, H. S. (2007). A Study of Relationship o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Intimacy. *The P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 153-170.
- Jung, E. H., & Lee, M. S. (2004). The Relationship of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Children's

- Aggression, and Peer Harass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115-126.
- Kim, K. S., & Lee, H. C. (2007).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n Journal Society for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17(2), 1-22.
- Kim, S. h. (2003). Research of juveniles' problematic behavior :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on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peer gro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o, J. J.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1-17.
- Kwon, B. S. (2000). Som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Functions Perceived by Mothers and Children of Single-Moth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0, 5-37.
- Kwon, Y. O. & Lee, J. D. (1999).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1(1), 115-113.
- Kwon, Y. O. & Lee, J. D.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8(1), 65-80.
- Kwon, J. H., & Lee, E. H. (2005). Predicting Game Addiction in Adolescents : An Application of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The Korean Journal Health Psychology*, 10 (1), 95-112.
- Lee, J. M., & Lee, Y. H.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33-58.
- Lee, M. S. (1999).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Seoul.
- Lee, Y. M., Min, H. Y., & Lee, Y. J. (2005).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College Students'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5), 53-62.
- Leem, J.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child communication type and child's depression dispo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Lim, S. J., Choi, S. M., & Chae, G. M. (2008).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 focusing on moderating the effect of coping 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1), 169-183.
- Min, H. Y.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 University, Seoul.
- Moo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7.0*. Seoul : Hakjisa.
- Mussen, P. M.,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York : Harper & Row.
- Oh, K. J., & Moon, H. S. (200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29-443.
- Oh, K. J., Ha, U. H., Lee, H., & Hong, K. E. (2001). *K-YSR : Manual for the Korean Youth Self-Report*. Soul : Gungang-Jucsung Press.
- Oh, S. H. (2006).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ce in Poverty : Exploration of Resilienc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1*, 181-205.
- Park, B. J., & Kim, H. W. (2008).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Individuation. *Myongji University Women and Family Life Study, 12*, 130-145.
- Park, B. K. (2002).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parent-child relationship, marital conflict, and peer victim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Y. S., & Kim, U. C. (20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linquent behavior among adolescents :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97-115.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oh, Y. O., Jun, M. K. (2006). A Study o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1), 1-18.
- Satir, V. (1972). *Conjoint family therapy*. California : Science of Behavior Books.
- Son, I. Y. (2007). The Relationship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Depression and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Son, J. Y., & Kim, H. C. (2004). The Effects of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331-358.
- Soon, N.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and Related Poli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Vanderwater, E. A. & Lansford, J. (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 47*(4), 323-330.
- Vincent, J. P., Harris, G. E., & Plog, A. (1991).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 The

-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marital affect and parenting.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5, 47-68. London : Jessica Kingsley.
- Yang, H. A., Park, Y. Y.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3(6), 947-860.
- Yu, S. H. (2003). Predicting Juvenile Delinquency by an Integrated Model of Social Bonding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289-315.

2011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